

추 도 사

죽암당 정락 큰스님!

**이 어찌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?
이 시대의 부루나존자로서 법문을
청하면 그 어디든 원근을 마다 앓고
달려오시어 쉽고 감동적인 법문으로
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기에 언제
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리라 생각했는데,
이렇듯 홀연히 원적에 드시니 이
황망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
니까?**

**아무리 생사거래가 본래 오고감이
없는 것이라지만 스님께서 이렇게
열반에 드시니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
금할 길이 없습니다.**

**근대 불교 최고의 선사이신 전강스님
회상으로 출가하신 이래 53년의
시간동안 스님께서서는 하루도 빠짐없이
스승께서 주신 판치생모(板齒生毛)화두를
챙기시는 한편 대중들을 포교하기
위한 모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
셨습니다.**

**스님께서 매일 아침 예불에 빠지지
않으시고 스승의 육성법문 테이프를
들으시며 하루를 시작하신 것은 문도들
모두가 잘 아는 일화이기도 합니다.**

정락 큰스님

**이제 이 시대의 자비보살이셨던
스님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
언제나 해맑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
떠올라 오히려 슬픔을 가누기 힘듭니다.**

**그렇지만 이제 슬픔을 거두고 스님의
포교 원력을 이어 불교 대중화를**

위한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.

**만의사에 ‘부처님나라’를 지으셨던
정락 큰스님!**

**이제 부처님나라로 환지본처하시니
여여하십니까?**

**크나큰 포교원력 여의지 마시고
하루 속히 스님을 기다리는 사바세계로
다시 돌아오소서.**

불기2555년 2월 21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